

5·18사적지 ‘옛 광주적십자병원’ 11년만에 개방

NEWS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내달 3~31일...응급실·중앙현관·뒷마당 등 공개
한강 ‘소년이 온다’ 배경지...역사관광 콘텐츠 확장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5·18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폐쇄 이후 11년에 개방돼 지역특화 관광상품인 ‘소년의 길’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로 확장된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5·18사적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일시 개방한다. 지난 2014년 폐쇄된 이후 11년 만이다.

개방 구간은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 효율을 고려해 전면 주차장과 응급실, 1층 복도, 중앙현관, 뒷마당 등이며, 관람 시

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후 1시30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의 ‘오월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해설을 제공한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어졌던 역사적 장소다. 1996년부터 서남대학교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폐쇄됐다.

광주시는 사적지 보존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매입해 관리 중이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통해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옛 적십자병원 뒷마당 모습.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5·18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시민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려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계획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중 하나인 점을 부각, 광주관광공사의 특화관광상품인 ‘소

년의 길’과 5·18기념재단의 ‘오월길’ 해설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적십자병원 개방 기념 전시회도 개최한다. 전시는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가량 진행된다. 전시에는 5·18 당시 헌혈 장면과 부상

자 치료 모습을 담은 사진, 병원의 역사, 관계자 증언이 담긴 영상자료 등이 선보인다. 또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체험형 콘텐츠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는 개방행사 종료 후 관람객 반응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공간의 지속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단체·전문가·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련 건물과 부지 전체에 대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사적지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전시가 기억과 공감, 참여를 이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관광취약계층 지원
‘행복여행 활동’ 4000명 모집

전남도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행복여행 활동’에 4000여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 문제로 여행을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800여명이 행복여행에 참여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1인당 당일 18만원, 1박 2일(완도·진도·신안 섬지역) 38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여행상품은 시·군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사에서 식사 2회, 유료 체험관광 등을 포함해 운영한다.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 시기와 여행상품 운영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 화양지구 비치콘도 기공식 박정환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시 화양지구에서 열린 비치콘도 기공식에서 내빈들과 기공을 축하하는 시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사전판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시, 진도군, 해남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의 바다를 매개로 연결된 수목화의 성립과 세계적인

확산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작가들의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입장권은 티켓링크, 네이버, 그리고 사무국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할인기간(5월 1일~8월 29일)에 입장권을 예매하는 경우, 성인권은 현장 구매(1만원)에서 30% 할인된 7000원, 청소년은 3000원(현장 5000원), 어린이는 2000원(현장 3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시민이 응원한다

시, 시민 서포터즈 3290명 모집...내달 23일까지 접수
유니폼 등 용품·실비 지급...자원봉사시간 인정 혜택

광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 장애인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서포터즈 3290명을 모집한다.

시민 서포터즈는 ‘광주시민이 직접 참여해 세계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경기장 응원과 선수단 환영·환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광주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영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자치구, 대회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이 가능한 시민 30명 등 총 3290명이다. 서포터즈는 대회 기간 1일당 3시간씩 활동하게 되며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등의 활동을 한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응원 유니폼과 모자, 응원부채, 수건, 손국기 등 응원용품이 지급된다.

또 활동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소정의 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6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7~8월 대만양궁협회 등과 협력해 국제대내, 경기구축, 안전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양궁 특성상 ‘선수 등장 시 박수, 격발 시 점목, 점수 확인 후 환호’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확산할 계획이다.

박원원 자치행정과장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가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프랜차이즈 기업과 전북 산업 활성화

전북계란말이김밥·전북비빔밥 등 신메뉴 4종 전국 매장 출시

전남도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인 양생김밥과 손잡고 전북을 활용한 프리미엄 김밥 등 신메뉴 4종을 29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북을 식재료로 식사 메뉴를 개발해 대중화된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전북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양생 김밥에서 출시 예정인 메

뉴는 전북계란말이김밥·전북비빔밥·전북계살볶음밥·전북물쫄면 총 4종이다. 100% 전남의 살아있는 전북만을 사용하며, 소비자 선호에 맞춰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메뉴를 개발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전남도 세계 김밥 페스티벌’에서 양생김밥과 전남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으며, 이번 메뉴 출시는 협

약에 따른 메뉴 개발과 제품 소비의 후속 조치다.

양생김밥은 현재 전국 250여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미국에도 분식창업을 진행하는 등 대형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다. 이번 신메뉴 개발 및 출시로 연간 56t의 전북 소비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전남도는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의 다양한 수산물을 재료로 가공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뉴정원산업

조경/건축/인테리어/실내외경관

담장, 디자인에 취하라!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 ✓ 자연석같은 전통 사괴석문양 '풍경벽'을
- ✓ 세계최초 한글조립식 문자블럭 '세종벽'을
- ✓ 조적, 물갈 등 별도의 잡 자재가 필요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 ✓ 담장 조성 각종 건축인테리어블럭

풍경벽돌배색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채스블럭 담장

키어블럭

담장은 예술이다

신제품 키어블럭(조립식조경용) PCT국제특허출원

NAVER 뉴정원산업

본사공장 전남 완순군 이양면 막포로862(동명리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